성범죄 · 보이스피싱 등 주요 위험상황별 대처법 안내

"위험이 느껴질 때 이렇게 대처하세요"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싸리문만 있어도 걱정 없이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높은 담장이 있어도 이웃을 의심하게 되며,

거리를 걸어도 옆 사람을 경계해야 할 정도로 위험한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옛말에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습니다.

집에서 잠을 자다가, 길을 가다가,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처법을 정리했습니다.

완벽한 대응법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도움이라도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생기는 위험 상황,

침착한 대응만이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성범죄 대처법

'틈'을 주지 말고 '틈'을 노려라

성범죄를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은 성범죄자가 접근할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위험 상황시 행동요령을 미리 익혀두는 것도 좋은 방법.
자녀를 둔 부모라면 주요 상황별 어린이 대처 요령도 배워 아이들에게 알려주자.

성범죄 예방 생활습관

엘리베이터 수상한 사람이 타고 있거나, 뒤따라올 경우 전화하는 척하면서 타지 않는다.
부득이 함께 탔을 경우 비상 버튼 옆에 선다.

택시 차번호를 외워두고,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위치 및 도착시간 등을 알린다.
가능하면 콜택시를 이용하고 합승은 자제한다. 기사가 권하는 음료수는 거절한다.
목적지까지의 경로는 자신이 제시한다.

택배 혼자 살 경우 배송장소는 가급적 직장 또는 학교로 지정한다.
집에서 받을 경우 경비실에 맡기도록 하고 나중에 찾아간다.

운전 늦은 밤 차량통행이 드문 곳에서 수상한 자동차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면 즉시 가까운 상점이나
주유소로 피한다. 외진 곳에서 사고가 난 경우 내리지 말고 경찰(☎112)이나 보험회사에 먼저 신고한다.
지하주차장 등에서는 주변을 먼저 살피고 내린다.

밤길 귀에 이어폰을 꽂고 걷지 않는다. 휴대전화나 가방에 호루라기를 매달아 둔다. 휴대전화 단축키
0번이나 1번에 112를 입력해 두거나, 스마트폰에 범죄예방 앱을 설치해 둔다.

이럴 땐 이렇게!

01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위험한 느낌이 들면 즉시 자리를 피하거나, 거절 의사를 밝힌다.

02 성폭행을 당했을 경우 씻거나 옷을 갈아입지 말고 여성긴급전화(☎1366)나 병원,
경찰(☎112) 등에 연락해 도움을 받는다.

이럴 땐 이렇게! 어린이 행동 요령

Q1. 길을 가는데 낯선 사람이 길을 물으며 함께 가서 알려달라고 한다.

"가야 할 곳이 있어서 지금 빨리 가봐야 해요."
라고 말하고 자리를 피한다.

Q2. 아는 아저씨가 차를 태워주겠다고 한다.

"그냥 걸어갈래요."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리 만나기로 예정된 사람이 아니면 따라가지 않는다.

Q3. 낯선 사람이 강제로 차에 태우려 한다.

"도와주세요."
최대한 소리를 지르며 주변에 도움을 청한다.

Q4. 집에 있는데 초인종이 울린다.

"아빠! 누가 왔어요."
혼자 함부로 열지 말고 부모님이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린다.

Q5. 엘리베이터 앞에 수상한 사람이?

위험하다고 느껴지면 되돌아 나와 경비아저씨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온라인 음란물, 이젠 그만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한 음란물 유통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음란물 접촉은 성범죄로 연결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터넷에서 **'그린아이넷 (www.greeninet.or.kr)'**, 스마트폰에서 **'스마트보안관'**앱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면 청소년들의 음란물 접촉을 차단할 수 있다.

납치 협박 보이스피싱 대처법

우리 아이가 납치되었다고?

가족을 납치했다는 전화를 받더라도 절대 흥분하면 안 된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납치 협박 보이스피싱'일 가능성도 있다. 차분하게 상황을 파악해 대처해 나가자.

이럴 땐 이렇게!

01 협박 전화를 받는 즉시 가족의 위치를 확인한다.
(옆 사람에게 메모지로 상황 전달, 확인 요청)

02 가족이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위치확인이 안 될 경우 최대한 시간을 끌며 경찰(☎112 또는 ☎1379)에 신고한다.

03 신고 후에는 은행으로 가고 있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시간을 지연시켜 경찰이 가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범인이 알려준 계좌번호는 메모해 경찰에 알린다.

보이스피싱 예방법

Tip 01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정보 등을 묻는 전화에는 일절 응대하지 않는다.

Tip 02 통화 중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피싱으로 판단한다.

Tip 03 납치협박 보이스피싱에 대비해 가족의 친구나 선생님, 회사 번호 등을 미리 알아둔다.

Tip 04 보이스피싱으로 확인되면 경찰(☎112), 금융위원회(☎1332),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등에 신고한다.

그 밖의 위험상황 대처법

지하철에서 방화를?

- 노약자 장애인석 옆으로 달려가 비상벨을 눌러 승무원에게 연락한다.
- 객차 내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끈다.
- 수동으로 출입문을 열거나 비상용 망치나 소화기를 이용해 유리창을 깨고 탈출한다.
- 수건, 티슈, 옷소매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비상구로 신속히 대피한다.

우리 집에 강도가?

- 밤에 도둑이 침입했다면 가벼운 기침을 하거나 선잠을 깬 것처럼 이불을 뒤척이면 도둑이 불안해 도망갈 수도 있다.
- 강도는 침입한 주택에서 흉기를 구하기도 한다. 평상시 흉기가 될 만한 물건은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사용한다.
- 귀중품을 집안에 둘 때는 분산해 보관한다.
- 출입문은 늘 닫아두고, 도어체인 · 창문방범창 등을 설치한다.

어디선가 이상한 냄새가?

- 가스 누출이 의심될 때는 즉시 환기한다. 전기스위치나 화기는 만지지 말고 119에 바로 신고한다.
- 지하철역 등에서 화생방 테러 의심상황이 발생하면 119 신고 후 즉시 대피한다.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물수건이나 마스크 등으로 호흡기를 보호한다.

내 가족이 만드는 위기 상황, 가정폭력

가정폭력은 집안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범죄이다.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경찰(☎112) 또는 여성긴급전화(☎1366)로 전화해 도움을 받는다. 경찰에 신고했다고 해서 가족이 바로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상담 및 쉼터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피해자 외에 이를 목격한 사람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당신 곁의 안전 지킴이…
위급할 땐 누르세요

상 황	신고번호
성범죄	112(경찰), 1366(여성긴급전화), 1301(검찰청 범죄신고)
보이스피싱	112(경찰), 1332(금융위원회),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흉기 난동	112(경찰)
가스누출 및 방화	119(안전센터)
불법 사금융 피해(사채 빚독촉)	1332(불법사금융신고)
가정폭력	112(경찰), 1366(여성긴급전화) 1338(헬프콜 청소년전화) 1577-1366(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아동 실종 및 가출	182(실종아동찾기센터)
아동학대	1577-1391(아동보호전문기관), 129(보건복지 콜센터)
학교폭력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손끝으로 지키는 '스마트 안전'

검색 창에 **SOS 국민안심 서비스** 를 쳐보세요